



1 본회소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제23대 임원명단

고문

강태성(49호) 전영화(49호) 이인실(52호) 정상화(53호)
최의순(53호) 최종태(54호) 송영방(55호) 강은엽(56호)
김봉태(56호) 김중학(56호) 김형대(56호) 윤명로(56호)
이우환(56호) 강찬균(57호) 부수언(57호) 이봉열(57호)
최병상(57호) 김신현(58호) 백현옥(58호) 성기점(58호)
엄태정(58호) 유영준(58호) 유희영(58호) 한영옥(58호)
이원복(59호) 이종상(59호) 임송자(59호) 김경인(60호)
심정수(60호) 심문섭(61호) 이강소(61호) 전 준(61호)
정승섭(61호) 손문자(62호) 송광자(62호) 이양원(62호)
정옥란(62호) 김소선(63호) 노명자(63호) 홍라희(63호)
김춘옥(64호) 신광석(64호) 김승희(65호) 박충흠(65호)
오용길(65호) 이용준(65호) 한운성(65호) 홍정희(65호)
차명희(66호) 최명룡(66호) 최인수(66호) 함인화(66호)
강희덕(67호) 장호익(67호) 윤효준(68호) 장수홍(69호)
이순중(70호) 김병중(74호) 이용덕(77호) 문 주(79호)

상임고문

김성희(82호)

명예회장

이신자(50호) 유인수(66호)

회장

권영걸(69호)

감사

이종복(62호) 김중선(74호)

상임부회장

황현수(74호) 이민주(76호) 김홍규(83호)

부회장

김지명(69호) 장혜용(69호) 황숙현(69호) 박항울(70호)
하수경(70호) 김천일(71호) 김혜원(71호) 나성숙(71호)
서명덕(71호) 강인선(73호) 양승희(73호) 임철순(74호)
조은영(74호) 이선원(75호) 안말환(76호) 조덕현(76호)
김춘수(77호) 김순애(78호) 변영혜(78호) 안기순(78호)
최미경(78호) 홍승혜(78호) 류길향(79호) 임영선(79호)
김형록(80호) 안필연(80호) 김혜림(81호) 이기조(81호)
허 진(81호) 권인옥(82호) 김성천(82호) 김창수(82호)
채혜선(82호) 김선학(83호) 신지희(83호) 이진민(83호)
최진희(83호) 광병두(84호) 김미연(84호) 이원주(85호)
김태곤(86호) 류대현(86호) 김일호(88호) 윤진하(89호)
권대훈(90호) 이 혁(90호) 선우향(91호)

이사

김광숙(69호) 김진경(70호) 유형택(70호) 윤정섭(70호)
차임선(70호) 최미영(70호) 최명애(70호) 추명희(70호)
이정연(71호) 객순화(72호) 고영란(73호) 박소영(73호)
안규철(73호) 이애자(73호) 박혜령(74호) 배창숙(74호)
신현경(74호) 이옥수(74호) 전민숙(74호) 홍미엽(76호)
장문걸(79호) 정상근(79호) 김유주(80호) 이지희(80호)
조정란(80호) 김은정(81호) 김덕용(81호) 박덕실(81호)
서효숙(81호) 이은숙(81호) 전성규(81호) 김성애(82호)
김성희(82호) 송인옥(82호) 유병익(82호) 유혜란(82호)
이종숙(82호) 임수진(82호) 황완옥(82호) 신하순(83호)
이상길(83호) 강재희(84호) 이경석(84호) 이옥준(85호)
최영인(85호) 송근영(86호) 류지선(89호) 양세혁(89호)
한정혜(89호) 권동현(90호) 장준혁(90호) 이광춘(90호)

사무국장

민수정(82호)

간사

한현정(08호) 최현주(12호) 장주연(12호)

SAP소식

이사회 및 총회 개최

본회 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SAP/이사장 권영걸)은 지난 6월24일 오후2시에 2021년도 이사회를 개최했다. SAP은 대면이사회를 준비하고 시기를



살펴왔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 회의의 줌(Zoom)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①2020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②감사보고 ③2021년도 사업계획 ④

2021년 1-5월 업무내역 보고 ⑤이사추가선임 ⑥총회 개최의 건 ⑦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인준했다. 또한 SAP은 이사회에 이어 지난 6월30일 오후2시에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회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의 안건은 ①2020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②감사보고 ③2021년도 사업계획보고 ④이사추가선임의 건 등으로, 각 사항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인준되었다. 이중 이사추가선임에서는 등기이사로 김홍규, 민수정, 임영선회원이, 비등기이사로 광병두, 권대훈, 선우향, 이민주 회원이 2019년도 1차 이사회에서 추천된 바, 정관 제3장 11조에 의거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쳤다. 이날 권영걸 이사장은 "추가로 선임된 이사들과 손잡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며 "오늘 정해주신대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온라인 해외동문작가초대전 개최

본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시는 동문작가들의 빛나는 활약을 한국에 소개하고 자료화 하고자, 그 첫 번째로 북미동문작가들의 작품전을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전시명칭 : 온라인 해외동문작가초대전-북미(가칭)
- 전시기간 : 2021년 10월1일-10월31일
- 출품분야 : 회화/조각/공예/영상/퍼포먼스/설치/건축/디자인
- 출품대상 :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동문
- 출품자료 :

- 신 청 서 : 1장(첨부된 양식)
- 작품사진 : 3장(JPG파일/1장당 500KB~1MB)
- 제출기간 : 2021년 8월1일 - 8월31일
- 제출방법 : 이메일 snuarta@naver.com

- 동창회비 : 연회비 3만원(\$30) 또는 평생회비 30만원(\$300)
-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입금시 성명, 학번, 학과 기재 (예시 : 김홍도84동양)

※ 평생회비 또는 2021년도 연회비납부자 제외

- 문의: 이메일 snuarta@naver.com 휴대폰 +82-10-9469-8065

모교소식

방학중 실기실사용

모교는 2021학년도 1학기 방학기간 중 실기실 사용 기준을 공개했다. 학사 과정은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기실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학원과정은 주중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실기실 사용이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2021년 6월22일부터 8월31일까지이다.

SNU ART & DESIGN 10-10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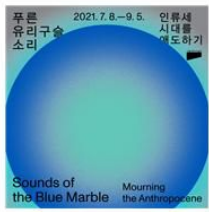
디자인학부는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과 표현기술의 다각화에 맞춰 예술 디자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고자 모교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프로세싱, 유니티, 언리얼엔진 특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모집기간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4일까지였으며 강의는 Zoom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세싱은 7월17일부터 8월28일 매주 토요일 오전11시에 진행되며, 유니티는 7월16일부터 8월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진행된다. 언리얼엔진 수업은 7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되며 학생들은 모든 강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프로세싱 특강은 김성현 강사가 맡았으며 프로세싱을 통해 코딩을 이용한 새로운 표현방법을 익히고 공학적 시선에서 디자인적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니티 특강은 박지윤, 우현주 강사가 진행하며, 유니티 3D 입문자를 위한 기초강의로 구성된다. 언리얼엔진 특강은 최이레 강사가 진행하며 언리얼엔진을 사용하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을 위해 제공하는 Blueprint 언어를 이용한다. 수강자가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수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Blueprint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언리얼엔진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대미술관 소식

푸른 유리구슬 소리: 인류세 시대를 애도하기

2021년 07월 08일 - 09월 05일

전시부문: 회화, 영상, 사진 등 80여 점



1972년 12월, 달로 향하던 아폴로 17호 승무원이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파란 유리구슬처럼 맑고 아름다운 지구를 담은 사진은 '블루 마블(The Blue Marble)'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환경운동의 상징이 됐다. 서울대미술관(관장 심상용/81회화)에서 지난 7월8일 개막한 기획전 '푸른 유리구슬 소리: 인류

세 시대를 애도하기'는 환경 오염으로 파괴되는 지구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취지로 마련된 전시다. 강주리, 구은정, 김신혜, 김유정, 나점수, 송수영, 안종현, 이소요, 임노식, 지알원(오른쪽 위사진), 한성필(오른쪽 아래사진), 허윤희 등 각자의 방식으로 생태 위기를 다뤄온 작가 12명의 회화, 영상, 조각 등 80여점을 소개한다. 강주리는 다리가 여섯개인 개, 눈이 하나인 원숭이, 콧구멍이 세개인 젓소 등 인간의 욕망으로 기이하게 변형된 생명체들이 영겨있는 모습을 그린다. 안종현은 도시가 불타고 난 뒤, 산불이 지나간 뒤 흔적으로 남은 재를 소재로 한 사진 작업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유도한다. 지알원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방독마스크를 쓰고 있는 독일군 이미지를 빌려 전염병 사태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오늘을 그래피티로 표현한다. 한성필이 극지방에서 촬영한 거대한 빙하의 모습에서는 대자연의 숭고함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녹아내리는 비극이 교차한다.



디자인학부 세미나



모교 디자인학부는 지난 6월18일과 7월2일 국내외 디자이너들을 초대해 그들의 일,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 'SNU DESIGN Work & talk' 세번째, 네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의는 줌에서 진행되었으며 세 번째 세미나 초청 강사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의 조교수인 Chris Hamamoto와 함부르크에서 research studio를 운영하는 디자이너 Saki Ho가 최근의 작업을 소개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그래픽 디자인의 오늘을 이야기했다. 네 번째 세미나에서는 Saki Ho가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세 번째 세미나에 이어서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교 구성원, 석박사 연구생 모두 참석 가능했다.



동양화와 선배와의 만남

모교 동양화과는 지난 6월28일 선배와의 만남 ZOOM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는 MEUM 대표 김휘재(12동양) 동문으로, 현재 메타버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강연에서는 메타버스 기술과 미술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김동문의 MEUM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동양화과는 당일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녹화영상을 공유했다.

제1회 서울대학교미술관 강연
다른 곳에서 제기된 질문들



서울대학교미술관이 기존의 양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현대미술의 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미술계의 반응과 향후의 적용 방향에 대한 격주간 강연을 개최한다.

일정: 7월22일, 8월5일, 8월19일, 9월2일
오후3시-5시(중간휴식10분, 질의응답20분)
장소: 서울대학교미술관
대상: 일반인(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명으로 제한. 강연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
참가비: 무료
신청: 홈페이지(www.snumoa.org) 신청문의 02-880-9504

강연주제

- 7월22일 이민하(중앙대학교 교수)
블록체인 아트 NFT
- 8월 5일 유진상(계원예술대학교 교수)
VR과 AR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술
- 8월19일 임근준(미술디자인 비평)
오타쿠 문화를 전유하는 한국의 현대미술
- 9월 2일 이규원(작가, 미술비평)
스타마케팅을 통한 현대미술의 엔터테인먼트화

서울대 소식

서울대-네이버 AI센터 설립

서울대와 네이버가 초대규모(Hyperscale)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5월10일 양측이 보유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집중시킨 초대규모AI연구센터를 설립해 공동연구에 나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초대규모 AI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율적·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AI다. 잘 만든 초대규모 AI는 다른 인공지능의 기반이 돼 원하는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글과 중국의 화웨이 등 글로벌 AI기업들이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초대규모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 인프라, 대량의 데이터, 연구인력 세 가지가 필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로 1.8년 정도 뒤처지고, 석박사 이상급 AI연구인력은 미국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해외발 AI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연구인력을 갖춘 모교와 인프라 및 데이터를 갖춘 네이버의 수요가 맞아떨어져 공동연구가 성사됐다. 양측의 목표는 한국어 기반 초거대 언어모델은 물론, 언어와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을 동시에 이해하는 국산 초대규모 AI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AI연구원 소속 교수와 대학원생 등 60여명을, 네이버 측은 40여명을 초대규모 AI 개발에 투입한다. 네이버는 서울대에 지난해 10월 구축한 슈퍼컴퓨터 인프라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3년간 수백억원 규모의 연구비와 인프라 지원비 등을 투자한다. 네이버 연구진이 서울대 겸직교수를 맡아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학생에게 네이버 인턴십과 산학협력 연구 기회도 적극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IBM과 MIT가 이같은 형태로 ‘왓슨 AI랩’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처가 꼽은 연구기관 세계 58위

자연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전 세계 연구기관이 발표한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평가하는 ‘2021 네이처 인덱스’에서 서울대가 지난해 (66위)보다 상승한 세계 58위에 올랐다. 평가 대상이 된 4개 자연과학 연구분야 중 서울대는 화학, 물리,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순으로 성과를 냈다. 국내에선 KAIST(64위)와 연세대(153위)가 뒤를 이었다.

비가이드 오픈

서울대는 UI(University Identity)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작한 서울대 비가이드라인(<https://identity.snu.ac.kr>)을 오픈했다. 템플릿을 제공하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기관UI, 명함, 이메일 서명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식 패턴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 ppt나 화상회의 배경, 현수막 등을 디자인 할 수도 있다.

북한정보분석에 AI활용

서울대가 북한정보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는 최근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북한 관련 AI 연구진을 출범시킨 것으로 지난 6월23일 확인됐다. 이 연구에는 정치외교학과와 농경제사회학부,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교수 등 북한 연구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지난 5월부터 AI 분석을 위한 북한 연구 데이터를 선별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반도 통일 연구에 AI 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연구진은 북한 정보 분석에 AI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연구진은 기존에 축적된 북한 통계 데이터와 북한에서 제작된 출판물 텍스트 데이터, 인공위성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이미지 데이터 등 크게 세 종류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에 머신러닝(학습된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해 새로운 결과값을 도출하는 AI기술)과 딥러닝(빅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AI기술)을 접목하면 보다 정확한 북한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북한 정보 생산 과정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개인의 주관과 경험이 반영돼 객관적 정보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분석도 어려웠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희망 사항이 정보 분석에 반영되곤 했는데 AI를 활용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통일부에서도 ‘북한 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사업엔 신규로 10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대는 정부의 장비 구축과는 별도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착수

서울대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칭)2022-2040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부 노정혜 교수, 기획부총장 이원우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출범했고, 비전, 교육, 연구, 학생지원·복지, 국제화·사회공헌, 멀티캠퍼스, 재정, 대학운영체제의 8개 분과(소위원회)로 나누어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지난 2007년 ‘2007-2025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각종 사회재난에 직면한 고등교육의 위기, 산업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새로운 발전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의 발전계획과 최근 발간한 ‘법인과 10주년 백서’를 바탕으로 대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올해 하반기까지 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학내 심의기구 및 각 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새로운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이 확정된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사회공헌 기금 모금 활로 열어

총동창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단법인 관악회의 정관 일부를 수정, 최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재단법인 관악회는 지난 2월17일 이사회에서 목적사업의 하나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부수정했다. 이를 통해 장학목적 외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사회공헌 지원금은 기존 장학기금이 아닌 별도 모금된 사회공헌 기금에서 사용된다. 이희범(67전자공학) 회장이 취임시 제시한 4대 슬로건 중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했다. 변주선(60영어교육)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류진(78영문) 풍산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류진 공동위원장이 1억원을 사회공헌 활동의 종자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8월 주요특강

일시 : 8월25일(수) 오전7시30분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 박재희 민족문화재단연구소장, 前포스코전략대학 석좌교수
 주제 : 역경! 논어에게 길을 묻다
 참가인원 : 45명 이내(선착순)
 신청기간 : 8월 1일-선착순 마감까지
 참가비 : 무료(음료 및 도서 제공)

신청방법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로 접수

공지사항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회비납부자(2021.6.24~7.20)

회 장 ● 권영걸(69응)
부회장 ● 장혜용(69회) ● 황숙현(69응) ● 강인선(73회) ● 조운영(74회)
● 임철순(74회) ● 이선원(75회) ● 김춘수(77회) ● 변영혜(78회)
● 안필연(80조) ● 홍승혜(78회) ● 이진민(83서) ● 김태곤(86조)
이 사 ● 김진경(70응) ● 차임선(70응) ● 최미영(70응) ● 추명희(70조)
● 이애자(73응) ● 전민숙(74조) ● 홍미엽(76회) ● 이지희(80회)
● 김덕용(81회) ● 이은숙(81회) ● 이종숙(82회) ● 유혜란(82회)
● 이옥준(85조) ● 이광춘(석00동)
회 원 ● 서동희(66응) ● 이동영(76응)

동창회 SNS 가입안내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가입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 김홍도(98동양)

인스타그램 계정변경안내

본회 인스타그램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공식계정을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snuartassociation ▶ @snuartalumni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872-8065)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일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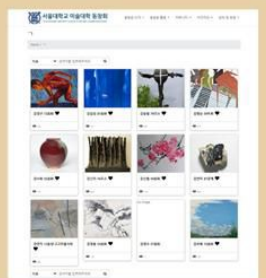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본회는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보실 수 있는 동문작품 아카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님들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기존에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요청시 수정 및 보완해드립니다.

지난해 온라인 동문전 'ART ON THE LINE' 개최와 동문작품집인 '서울대미술 안'을 발간을 바탕으로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로 전환해 공개한 아카이브에는 현재 650여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 되어 있으며 방문횟수는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총 5만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재대상도 기존의 시각예술작품 외에 영화, 공연, 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등 실적물까지 확대해 전 동문들을 아우르는 아카이브를 제작 중입니다. 따라서 본회 메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바로 아카이브에 게재 또는 수정보완 해드립니다.

게재신청

메일주소: snuarta@naver.com

자료: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이나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금년도 회비납부회원(납부안내는 본 페이지 왼쪽상단)

문의 : 02-872-8065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형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故 한도룡(54응미/ 1933-2021)



한도룡 동문이 지난 6월2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한동문은 한국의 현대 공예 및 디자인계를 개척하고 선도해 온 1세대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여명기인 1960년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교육 및 행정과 실무 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디자인 교육의 활성화, 체계화는 물론 디자인산업의 진흥과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40여 년간 대학에 적을 두었던 디자인 교육가이자 공예, 디스플레이, 환경, 산업 디자인 등 여러 디자인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한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의 활동과 업적은 한국 디자인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4년 모교 응용미술과에 입학 후 이듬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공예 부문에 첫 출품한 작품이 특선에 선정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1959년까지 4회 연속 특선하며 일찍부터 공예 디자인에 대한 예술적 재능과 감성을 인정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인 1960년에는 동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1961년에는 20



대 최연소 서울시 문화상 공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예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한동문은 1959년 국내 최초의 산업 디자인 관련 국가 연구소인 '한국공예시험소'에서 디자인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61년에 홍익대학 미술학부 강사로 교직에 첫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이후 1966년 홍익대학교 공예학부의 전임교수로 임용되며 디자인 교육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교육과 병행하여 각종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행정·문화·산업계의 디자인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의 지도 및 자문 등 전문위원 및 디자인 개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국전 공예부문의 추천·초대작가와 상공미전(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공업미술부문의 초대디자이너 자격으로 작품을 출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동문의 대표작으로는 독립기념관 상징탑인 '겨레의 탑'과 1992 세비아 엑스포의 '한국관', 1993대전엑스포 상징탑인 '한빛탑', 서울지하철 CIP계획(1982) 그리고 '88서울올림픽 사인시스템' 등이 있다.

故 김태(51회화/ 1931-2021)



모교 명예교수 김태 동문이 지난 7월1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동문은 1931년 함경남도 홍원 출생으로 1950년 평양미술대학 회화과를 2년 다니다가 6.25전쟁 무렵 월남하였다. 1951년 모교 회화과에 입학해 1955년에 모교 회화과를, 1967년에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제3회 국전 '북한산 秋景', 제4회 국전 '건어', 제5회 국전 '어선의 구상', 제7회 국전 '창변 窓邊에서'로 입선하였고 1963년 제1회 한국미술협회회원전 미협이사장상을 수상했다. 10여 차례의 개인전과 양가주망전, 한국수채화 작가회전, 예술의전당 개관기념전 등 수많은 단체전에 출품하였다. 1967년 이후 1996년 퇴직할 때까지 모교



서양화와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1984년에는 제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김동문은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유행을 따르지 않고 구상적인 표현을 통해 뚜렷한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이루어냈다. 풍경, 인물, 정물 등 다양한 대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관찰하였고 탄탄한 구성과 아름다운 색감으로 화폭 위에 구현하였다.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신문회관·신세계미술관·양지화랑·문화화랑·광주 현대화랑·대구 이목화랑·뉴욕 한국갤러리·예화랑·선화랑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故 차동하(85동양/ 1966-2021)



본회 부회장이자 모교 교수인 차동하 동문이 지난 6월 22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55세. 고인은 1966년 부산 출생으로 1990년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1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2004년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2011년 동양화과장, 2019년 교무부학장을 역임했다. 서정적인 색감과 격자무늬로 표현한 '삼다(三多)' 연작이 대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차동하의 작품은 마치 색면추상을 보는 듯하다. 종이와 먹이라는 동



양적 요소보다는 색채와 구성에서 서구적인 모던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차동하는 내면적인 사의를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추상화하고 절제된 화면 구성으로 표출하고 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17회의 개인전과 일본 후쿠오카미술관(2010), 중국 관산월미술관(2009), 프랑스 브레라미술관(2008), 베이징 한국문화원(2007)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등에 소장 되어있다.

故 강석호(91조소/ 1971-2021)



강석호 동문이 지난 6월29일 별세했다. 향년 50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서양화 전공 마이스터실러를 취득했다. 자신의 작업을 '풍경화'라고 말했던 강동문은 2008년 브레인팩토리, 2012년과 2019년 스페이스윌링앤딩, 2015년 미메시스아트뮤지엄, 2017년 페리지갤러리 등에서 총 10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전시기획자로도 활동하며 2011년 한국



의 그림-사진을 읽다(갤러리팩토리, 갤러리현대 16번지), 2012년 한국의 그림-매너에 관하여(하이트 컬렉션), 2014년 키친-20세기 부엌과 디자인(금호미술관) 등의 전시를 공동 기획한 바 있다. 제4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홍익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출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서세옥 컬렉션 서세옥(46회화)



지난해 작고한 한국화 거장 서세옥(1929~2020) 동문의 유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평생 모은 미술품을 지난달 성북구립미술관에 기증했다. 기증 미술품 중 고인의 창작물을 제외한 순수 수집품은 992점이었다. 특히 이 중 청나라 말 상하이에서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상파만 150점에 달했다. 미술관 측은 “서세옥 컬렉션은 해상파에서 조선 후기 화가 최북, 추사 김정희, 영은 김용진의 작품으로 이어진다”며 “중국과 한국 수묵의 상관 관계 연구 및 귀한 관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아편전쟁 이후 통상 항구로 개방돼 각지의 화가가 몰린 상하이에서 해상파는 전통의 기초 위에

실험을 가미해 활달한 개성을 창조했다. 해상파 대표 화가 우창쉬 등의 신(新)문인화에 심취했던 서동문 역시 한국 근대 문인화의 새 모색을 시도했기에, 이번 컬렉션이 동양 문인화 전통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세옥 컬렉션’에 포함된 우창쉬의 작품 실물을 일별한 서예가 권창륜은 “중국 도록에도 없는 희귀작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노인과 동자의 수목화(1917년 작)’의 경우 글씨는 우창쉬, 인물은 우창쉬 제자 왕전이 그린 합작화다. 자오즈첸의 모란 그림도 일품이다. 또한 현재 중국 화단의 상징과도 같은 치바이스의 서화도 눈길을 끈다. 국내에도 드물게 개인 소장된 작품이 있긴 하나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워낙 위작 시비가 많아 출처가 확실한 치바이스의 그림을 상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미술관은 관련 연구작업을 진행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작품을 전시할 방침이다.

김세중조각상 수상 백현옥(58조소), 허산(99조소)



백현옥 동문이 제35회 김세중조각상을, 허산 동문이 제32회 김세중청년조각상을 수상했다. 김세중조각상은 한국 현대조각 1세대인 김세중(46조소/1928~1986) 동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87년부터 제정된 상으로 조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수상자 심사에는 중앙대 심문섭 명예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이화여대 원인종 교수, 서울대 이용덕 교수, 홍익대 박석원 명예교수와 김이순 교수가 맡았다. 백동문은 인체를 통해 인간애를 조형화하고, 인체 조형미를 다양하고도 일관되

게 탐구해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백현옥의 구상작업 속엔 인간과 자연, 어둠과 빛, 수직선과 수평선, 정중동 등 상반되지만 공존의 개념이 내재한다”고 평가했다. 백동문은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서울조각회장, 춘천 MBC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운영위원장, 김종영기념사업회 운영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추천작가 등을 역임했으며, 제23·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세중청년조각상을 수상한 허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슬레이드 예술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한 뒤 첼트햄 글로스터서 대상(2011), 영국 왕립 조각가 소사이어티 신진작가상(2013)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수상 엄태정(58조소)



엄태정 동문의 엄미술관이 지난 5월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24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박물관협회의 주관으로 매년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한 박물관인에게 주어진 상을 올해부터는 기관도 추가돼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출판물 총 3개 부문에서 엄미술관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열린 ‘대지의 연금술’ 기획전 도록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도록에는 멸종된 새를 재현한 제이콥 쿠즈크 스티븐 작가의 ‘부활과 야생회귀’ 미디어 작품과



함께 지역민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거미줄을 만드는 친환경 커뮤니티 프로젝트 ‘생태공방’, 미국 자연사 박물관 세릴 하야시 박사와의 인터뷰 등이 수록돼 인류가 초래한 환경파괴를 들여다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기획전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역문화플랫폼 육성사업’을 지원받아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깊다. 화성시 사립미술관 1호인 엄미술관은 엄태정 동문의 작업공간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것으로 국내외 근현대미술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엄동문은 모교 조소과 교수 및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모교 명예교수 및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NewerArT

새 시대 아트 스튜디오

대표이사 유영래

Cell : 010-5229-4583

Tel : 031-902-1597

Fax : 031-901-1597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한신메트로폴리스 2층 207호
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05번길 96-6 가동

E-Mail : ssd88s@naver.com
Homepage : www.newerart.com
인스타그램 : @newerart_studio

시사저널 이견희컬렉션 인터뷰 권영걸(69응미)

“국내외 관람자 입장에서 보라, 어디가 좋은지...”
공공디자인 전문가 권영걸 전 한샘 사장 인터뷰



서울대 미대 학장을 역임한 권영걸 전 한샘 사장은 “이견희 컬렉션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미술관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부시장)을 맡았고, 개인적으로 서울시 송현동이 최적지라고 생각해 내 생각을 강하게 말하긴 힘들지만, 지금처럼 이상

한 연구주의를 내세우며 많은 지자체가 경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샘 사장에서 물러난 뒤 권 전 사장은 계림예술대 총장을 역임했다. 권 전 사장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견희미술관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나.

“세계적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가 강해 빚어진 게 아닐까 싶다.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보라. 바람직한 현상이다. 나 역시 찬성이다. 하지만 굳이 문화예술에까지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 걸까. 미술품을 분산 배치하면 세계적인 미술관은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서울 송현동에 들어서야 한다는 뜻인가.

“나 역시 지역이기주의로 비칠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견희 컬렉션을 보고 싶은 관람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어디가 좋은지.”

왜 일각에선 송현동을 주장할까.

“이견희 컬렉션은 인류 문화자산이다. 시간적·유형적·장르별로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미술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송현동 부지는 정도전이 왕자의 난 때 죽은 곳이다. 그렇기에 조선조에는 지역의 음기를 누르기 위해 일부러 명문 세도가들이 그곳에 집을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살던 사람들이 대체로 불행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심 한가운데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인근에 경복궁·창덕궁 등 역사문화 관광지가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및 여러 사설 미술관이 가까이 있다. 문화예술벨트의 중앙에 있는 것이다. 정말 절묘한 위치다. 문화예술 클러스터가 중요한데 관광객 입장에선 이들 시설을 도보로 이용해야 한다. 그게 요즘 세계적인 추세다. 송현동에 들어서면 경복궁부터 창덕궁까지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

(출처 : 시사저널/ 송창섭 기자)

장인의 길 최회권(58응미)·최국강(62응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최회권 동문이 회고록을 출간했다. 245쪽의 회고록 '장인의 길'은 제9대 한인미술가협회장이자 제27대 한인상 문화부문 수상자인 최동문의 청소년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삶을 조명한다. 1970년 캐나다로 이민한 이후 스칼라페플러 가구회사의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이사, 플레어퍼니처 부사장이 되기까지의 최동문의 끝없는 도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가구디자이너로 주류



사회에 널리 알려져 23회 이상 온타리오 트리클리엄상을 받았다. 2019년 6월부터 집필을 시작한 회고록은 작년 말 출간 됐으며, 한국어가 서툰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부인인 최국강 동문이 옮겨 영문판인 'HOI KWON CHOI MEMOIR. CARVING A PATH OF THEIR OWN-A'으로도 출간 되었다. 60여년을 함께한 부부는 모교 선후배사이이자 작품생활을 함께한 예술동지로 한인미술가협회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회권 동문은 악기제조에도 능해 하프, 첼로 등을 제작해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NFT 디지털경매로 출품 김병중(74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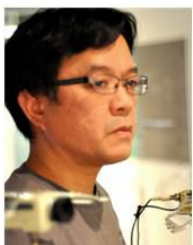


김병중 동문의 작품이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로 제작되었다. 이로써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김동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선물한 작품을 계기로 중국 베이징 진르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글로벌 마케팅 전문기업 워너비인터내셔널은

“김병중 화백의 주요 작품 중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시

선물한 담채화 작품 '서설(瑞雪)'의 서울대 정문'을 NFT 토큰화하여 온라인 예술품경매에 출품할 것"이라며 오는 7월 20-26일 워너비인터내셔널의 NFT 통합서비스 플랫폼 NvirWorld에서 한국, 중화권, 미국, 프랑스, 영국,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 총 22개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온라인경매를 통해 선보이며, 수익금 전액은 전세계 아동 보호를 위해 유니세프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편, 생명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진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성공관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와 모교 동양화과 교수, 모교 학장을 역임하고, 한국, 파리, 시카고, 브뤼셀, 바젤, 도쿄, 베를린 등에서 개인전 40여 회, 초대 및 기획전 500여회를 열었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녹조근정훈장과 허백련미술상, 2019년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금정굴이야기 전승일(85서양)



전승일 동문이 금정굴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주제로 한 단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제작을 앞두고 있다. 작품 제목은 '금정굴이야기'. 작년 고양시 후원으로 발간된 소책자 '항아리가 지켜준 아이'를 원작으로 하는 이번 작품은 유족들의 실제이야기를 15분 내외 런닝타임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중 가장 큰 비극을 겪은 서병규 전 금정굴유족회장과 안종호 할아버지의 구술기록이 시놉시스의 중심을 이루며, 이를 통해 그동안 이념이라는 단어로 감춰지고 은폐된 70여년 전의 참혹했던 금정굴학살을 다시 이야기한다. 지난 29년간의 작품 활동을 거치며 5.18민주화 운동, 세월호사건,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뤄왔

던 전동문은 우리나라 독립애니메이션 1세대 감독으로 손꼽힌다. 애니메이션 '금정굴이야기'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잇고, 예술적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희생자 유족들과 사회 공동체와의 연결과 재구성을 추구한다. 제작비를 전액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텀블벅에서 총 800만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펀딩은 지난 7월15일 기준 86명의 후원자가 참여한 가운데 170%(13,644,000원)로 목표 액수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전동문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히 제작비 모금차원을 넘어 관심을 높이고 제작과정에도 참여하는 일종의 시민제작위원회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이야기'는 내년 3월까지 제작을 마친 뒤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금정굴사건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뉴컨템포러리즈 선정 이진준(01조소)



미디어 설치작가 이진준 동문이 영국 블룸버그 뉴컨템포러리즈 2021에 선정됐다. 뉴컨템포러리즈는 올해 창립 72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공모전으로, 매년 영국 현대 미술을 이끄는 젊은 작가들을 선정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현대미술의 미래를 조망한다.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패트릭 콜필드(Patrick Caulfield), 크리스토프 오펜(Chris Ofili) 등 현대미술계의 거장이 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거쳐 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선정작가들 간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조각가 휴 로케(Hew Locke), 2019년 터너프라이즈 수상자인 타이 샨니(Tai Shani), 영화감독 미셸 윌리엄스 가마커(Michelle Williams Gamaker)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역대 가장 많은 6500명의 후보자들 중 75명 작가들을 선정했다. 이동문이 출

품한 2021년 신작 'Empty Garden'은 정원을 배경으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을 돌며 끊임없이 순회하는 정원의 모습을 AI기술로 생성한 영상 작품이다. 한편 이동문은 미디어아트, 디지털 건축, 공간 경험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한 융합적창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선보인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체코 국립현대미술관, 불가리아 외국인미술관, 인도 국제협력센터, 영국 왕립예술원, 영국 왕립음악원 등 50여 곳의 국내외 유수 기관 및 갤러리에서 전시와 강의를 하며 현대미술 최전선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영국 왕립조각원(Royal Society of Sculptors)의 한국인 유일한 정회원(MRSS)이자 영국 왕립예술학회(Royal Society of Arts)에서 세계적인 석학에게 수여하는 타이틀인 석학회원(FRSA, Fellow of the Royal Society of Arts)이다. 2001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조소과에 편입하여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영국왕립예술대학원(Royal College of Art)에서 빛과 소리 영상 등 비물질적인 조각 작품연구로 졸업최고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는 8월부터 KAIST 문화기술대학원에 전임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특별전 오수형(에릭오/02서양)



애니메이션 감독 오수형 동문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에릭오특별전'이 지난 7월 11일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에서 열렸다. 한국을 찾은 오동문은 오프라인 GV 이벤트인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해 '오페라' 발표 후 처음으로 작품세계에 대해 관객들과 직접 소통했다. 에릭오특별전에는 오동문이 픽사에서 참여한 작품 외에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써 제작해 온 주요 단편 작품들 중 총 9작품을 엄선하여 그의 주요 작품세계를 보여줬다. 지난 4월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유일한 한국 제작 작품이자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의 유일한 아시아 작품으로 후보로 올라 경쟁하면서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았던 단편작 '오페라'를 포함하여, 오동문이 참여한 작품 중 처음으로 오스카 후보에 올랐던 화제작 '땀 키퍼',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된 최신작인 VR 애니메이션 작품 '나무'와 '심포니', '하트', '사과 먹는 법', '군타', 'O', '무지개 칠하는 법'까지 그의 커리어 초창기 작품부터 최신작을 망라하는 주요 단편작들이 연속상영되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며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는 오동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이달의 얼굴'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동문의 단편 애니메이션 신작 '오페라'는 올해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일한 한국 제작 작품이자,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의 유일한 아시아 작품으로 후보로 올라 경쟁했다. '오페라'는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비롯, 수많은 국제 영화제들에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SXSW, 슬램댄스, 글래스 페스티벌, 아스 일렉트로니카 등에서 연이어 수상 소식을 전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20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수차례 인정받았다. '오페라'는 올해 초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모들 정신분석 심리치료

이효숙(78회화)

본회는 모들 정신분석 심리치료(대표 이효숙)를 동문협력업체로 위촉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동문들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효숙 동문은 1978년 모교 회화과(동양화전공) 졸업후 1986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미술교육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현 현대정신분석연구소)에서 대상관계 심리치료 수련, 2006년부터 2011년까지 PIP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정신분석 심리

치료 수련,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Tavistock & Portman에서 성인 심리치료를 수련했다. 저서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공동번역(2007/전19권), '대상의 그림자' 공동번역(2010/도서출판 한국심리치료연구소), 'Reading Freud' 대표역자(2011/눈출판사), '정신분석의 이론들' 번역(2014/눈출판사) 등이 있다.

치료실 : 모들 정신분석 심리치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플래티넘빌딩 1505호

T : 02-722-5305 M : 010-3265-5305 E : modle@outlook.kr

▶동문들께는 봉사차원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제 16기

서강대 경제대학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미래경영자를 위한
글로벌(Global), (Ethics), & (Humanity)

Genh.kr

서강대학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02)705-7914 / genhsogang@hanmail.net
041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게이트 남덕우경제관 글로벌 EnH최고위과정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글로벌 미래, 윤리경영-인문학(G-EnH) 최고위과정에 초청합니다.

본 과정은 기업의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과 준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한국감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바이든 시대, 대전변의 글로벌 환경에서 리더는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글로벌 경제와 준법 경영, 인문학과 건강을 융합한 G-EnH 최고위과정은 서강학파로 명성 높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교수들과, 경영, 인문, 철학, 역사, 과학, 건강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강사로 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본 과정은 최고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건전한 거버넌스 등의 필요 요소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한 윤리준법에 대한 가치관을 배양하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최고 심화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동참하시어 그동안 배출된 1,000여 명의 저명하고 훌륭한 원우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ECA(Ethics Compliance Auditor)'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감사협회 회원인 경우 '윤리준법 감사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환영합니다.



몽유 이강소(61회화)



이강소 동문이 서울 삼성동 갤러리현대에서 지난 7월16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개인전 '몽유(夢遊, From a Dream)'를 열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21년까지 완성한 회화 30여 점으로 채워진 이번 전시는 '화가 이강소의 진면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신작전이다. 역동적인 붓질과 과감한 여백, 여러 층위로 칠한 거친 추상적 붓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꿈속에서 놀다'로 해석되는 '몽유(夢遊)'는 이강소의 미학적 세계관을 함축한 단어다. 동시에 그것은 그가 그림에 담고 싶은 시대적 명제이기도 하다. 그는 물질과 형상, 숫자로 가득찬 작금의 세계가 실은 꿈과 같다고 말한다. 번쩍번쩍 화려하고 압도적일수록 허상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강소는 "나에게 이 세계는 엄청난 신비로 가득하다. 동시에 정신차릴 수도 없이 복잡하고 가공스럽다. 만물은 생명을 다해도 그 원소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흩어지더라도 우주의 구조와 함께 알 수 없는 인과의 생명을 거듭할 것이다"라며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탐구해온



동양철학과 양자역학에 기반한 통찰을 작품에 켜켜이 담아내고 있다. 갤러리현대에는 "평면의 캔버스에 무한의 공간성을 구현한 실험적 신작 회화"라며 "이번 전시에서 이강소가 지난 20년 넘게 전개한 회화적 언어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동문은 한국 현대미술과 동시대미술사를 논하며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다. 모교 졸업 후 경상대학교 교수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캠퍼스 객원교수를 역임한 그는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비디오, 판화, 회화, 조각 등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특정 사조나 형식적 방법론에 안주하지 않았다. 1970년대 '신체제', 'AG(한국아방가르드협회)', '서울현대미술제' 등을 주도하며 한국 실험미술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동문은 내년에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전시 '아방가르드: 1960~70년대 한국의 실험미술' 참여 작가로 선정됐다.

'울산을 찍다' 선정 신장식(78회화), 안정민(71회화)



안정민, 신장식 동문이 7월 21-26일 열리는 '제9회 울산국제목판화페스티벌 & 2021 비엔날레-울산을 찍다' 특별전에 선정됐다. 안정민 동문은 울산만을 골똘히 생각하며 완성한 작품 '울산단심-대운산(왼쪽사진)'을 선보인다. 작품명은 오로지 한 곳을 향한다는 '일편단심'과 울산을 합친 것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주로 폭포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대운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영감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직접 울산을 방문하지 못한 대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대운산의 소개글을 보고 작업과 연결 지었던 것. 안동문은 목판에 실리콘 캐스팅 기법을 활용하며 판화의 표현영역을 확장했다. 또 목판은 합판을 사용해 계곡으로 쏟아지는 물의 거친 느낌을 구현했다. 작품에 대해 안동문은 "대운산 계곡물의 흐름으로 울산의 원류적인 의미와 다양한 산업현장을 이끄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성신여대 대학원 판화과를 졸업했고 27회 개인전 개최와 함께 '판화, 판화, 판화(202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지-인간(2014, 캘리포니아주립대 도서관갤러리)',

'세계판각·판화전-천년의 바람(2011, 합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세계교류관)' 등에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금강산 작가'로 불리는 신장식 동문은 추천제 국제공모전으로 개최된 2019년 울산국제목판화비엔날레 추천위원, 지난해 울산국제목판화페스티벌 출품 작가로 페스티벌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강산 옥류동을 배경으로 희망과 평화를 이야기한 작품 '금강산-희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페스티벌에선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목판화 '고래가 춤춘다-범과 표범 사슴 사람도'(왼쪽사진)를 전시장에 내건다. 그는 작품에 대해 "반구대 암각화에 보이는 고래와 동물의 모습,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생명력과 생동감을 목판화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신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1989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국내외 35차례 개인전을 가진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조감독을 맡은 뒤부터 금강산을 그리기 시작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회담장 내 그의 작품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이 두 정상'의 기념촬영 뒷배경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탄그림 황인기(71회화)



황인기 동문이 7월 7-27일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개인전 '황인기 목탄 그림'을 갖는다. 황동문은 전통 산수화 이미지를 디지털 픽셀로 전환해 레고 블럭이나 크리스탈 등으로 채운 '디지털 산수화'로 이름을 알렸다.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벽면에 길이 28m의 디지털 산수화를 선보이는 등 그동안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대형 작업에 몰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에 목탄으로 그림과 짧은 글귀를 담은 문인화 형식의 드로잉 작품을 선보인다. 80x110cm 크기 종이에 마치 어린아이 그림처럼 간결한 선이 두드러지는 드로잉이 삶의 연륜과 통찰이 묻어있는 시적인 글귀와 어우러진다. 동양화처럼 넓은 여백은 여유와 여운을 남긴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듯한 작품은 텅 빈

듯 하지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황동문은 디지털 산수화 등 큰 작업을 할 때는 계획이 필요한데, 드로잉은 마치 배설하듯이 쑥 나온다고 설명했다. 대작보다 더 꾸밈없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토해내는 작업이라는 의미다.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린 것이 아니라 그려놓고 나서 보면서 거꾸로 나도 생각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허연 종이를 놓고 바라보다 보면 모양이 보이고 생각이 나는 것을 그린 뒤 글을 붙인다"라며 "지나고 보니 내가 사람의 이기심, 자본주의 해악, 죽음 등에 관심을 가졌더라"고 덧붙였다. 드로잉 작품은 대부분 목탄으로만 그렸고, 일부에 먹이나 작가가 그동안 사용한 크리스탈, 홀로그램 필름 재료를 썼다. 30년 가까이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완성한 700~800점 중 이번 전시에 30여 점을 내놓는다. 드로잉 작업 외에 4m 폭의 광목천 위에 먹으로 그린 대작과 홀로그램 필름에 그린 실리콘 드로잉 등을 볼 수 있다. 황동문은 모교와 미국 프랫인스티튜트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내외를 오가며 작품활동을 했다.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고, 2003년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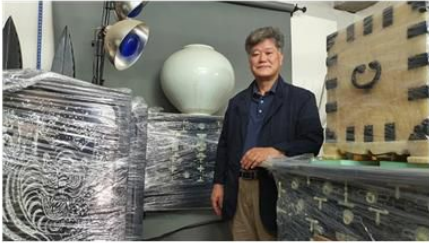
마고, 그 신화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의 신작전 '마고, 그 신화'가 지난 7월3일까지 서울 청담동 제이엔오(JNO)갤러리에서 열렸다. 올해 칠십 줄에 들어선 노작가한테 주문이 들어왔다. 주어진 시간은 단 열흘. 그 안에 198㎡(60평) 남짓의 전시장을 수 십점의 새 작품으로 채워달라는 것. 한민족의 창세 신화 중 하나인 마고신화 속에 나오는 여성 신 마고와 태초 마고성의 사람들 군상이 채우는 그림의 숲을 일구는 것이 목표다. 이 거대 서사의 미술을 어떻게 금세 만들어

내라는 걸까. 하지만 서용선은 해냈다. 단순한 열정으로 풀이할 수 없는 집요한 끈기와 새 형상을 창조하겠다는 상상력과 집념. 그 불가사의한 동력이 열흘간 출근하듯 찾았던 전시장에서 숯불처럼 붓질로 타올랐다. 12년 전 사실상 마무리했던 과거 '마고신화' 연작들의 신과 인간들의 도상을 다시 기억하고 복기하면서 2021년 팬데믹 시대의 상상력을 입혀 분투하듯 땅을 딛고 도약하고 몸을 움찔거리는 군상들의 물감 드로잉 그림을 만들어 내 전시장 한복판을 빙 두르듯 내걸었다. 12년 전 우연히 봤던 작가의 마고 연작을 기억하고, 지금 시대에 걸맞은 신작을 현장 작업으로 만들어보려 한 화랑주의 의도는 "의기투합이 잘됐다"는 작가의 말처럼 절묘하게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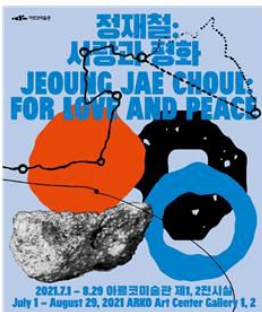
돌로 만든 고가구 권창남(82조소)



조각가 권창남 동문의 13번째 개인전이 지난 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서울 신문로 갤러리내일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독특한 돌로 만든 고가구 작품 29점이 전시되었다. 모교 조소과 출신으로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했던 그는 공장에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순수 제작하는 신념과 예술혼의 작가이다. 모교와 서울예고 등에서 강의와 작업을 병행하다보니 수업이 없는 날은 새벽부터 밤까지 꼬박 작업장에서 살다시피 한다. 권동문은 1998년 첫 번째 개인전에서 '시각적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인 이래 조각가로서 제작의 즐거움과 그를 통한 작품의 완벽한 마무리를 우선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어떤 즐거움을 관객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늘 고민했다. 특히 미술이 지나치게 관념화되는 것에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관객과의 사이에 소통의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도장과 전각 파기에 뛰어난 재주를 보이며 이미 조각가의 자질을 선보인 권동문은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만화를 보고 똑같이 그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1982년 모교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난 작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작품의 원천이 되었다. 그동안 개인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을 풍경조각이나 집, 가구 조각으로 이어왔다. 특히 돌조각 가구는 1989년 어머니를 여의고나서 모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2005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시리즈이다. 권동문은 앞으로 '궁'과 '한옥' 시리즈로 넘어갈 것이라 말했다. 오석(烏石)으로 한옥을 적절히 배치시킨 수목 입체 조각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산천조목을 입체 풍경화 같은 이미지로 돌조각으로 만들고, 인체도 만든다면 서양인 얼굴이 아닌 개성있고 독특하면서도 한국인 같은 얼굴로 만들어야 하기에 향후 과제로 남겨놓았다.

사랑과 평화 정재철(83조소)



정재철(1959~2020) 동문의 작고 1주기를 맞아 '정재철: 사랑과 평화'전이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8월29일까지 서울 아라코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00년 이후를 작업에 대한 태도와 방법론적인 변화의 전환점으로 보고, 현장 작업 '실크로드 프로젝트'(2004-11), '블루오션 프로젝트'(2013-20)'를 통해 작가 정재철의 태도와 사유의 변천, 사회적 문제를 향한 작가의 성찰을 보여준다. 정동문은 2013년부터 전국 해안가를 다니며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룬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신안군, 제주도, 새만금 등 동서남북 해안가를 답사한 뒤 해양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담은 루트맵 드로잉 '북해남도 해류전도', '제주일화도' 등을 제작했다. 전시장 바닥에 놓인 병뚜껑, 낚시도

구, 장난감, 술병, 어망 등 해양 쓰레기 더미는 인류의 공유지인 바다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러준다. 2018년 개인전 '분수령'에서 선보였던 과천 갈현동 가루개마을에서 채집한 씨앗과 돌, 화분 등도 자리했다. 재개발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버린 꽃과 나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일궈온 장소와 시간의 흔적들을 탐구한 작업이다. 전시의 제목인 '사랑과 평화'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영국 런던의 팔리아먼트광장 반전 시위캠프의 천막 위에 적은 문구다. 작가의 작업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사랑, 그리고 평화는 사회 참여적 프로젝트를 통해 지향했던 공동의 지평을 드러낸다.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정동문은 중앙미술대전 대상(1988), 김세중 청년조각상(1996) 등을 받으며 촉망받는 조각가로 이름을 알리다 1990년대 후반 뉴욕 등 해외 레지던시 참여를 계기로 사진, 드로잉, 오브제 같은 다양한 매체로 눈을 돌렸다. 작품 주제도 사회참여적이고 실천과 대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환경 위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장소특정적 설치와 공공미술 작업을 활발히 펼쳤던 그는 지난해 초 간암 발병으로 생을 마쳤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채동문(90서양)



채동문 동문이 7월 20-31일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 두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다. 채동문은 이번 전시에 대해 "툼 소녀의 모험과 허클베리핀을 읽고 미시시피라는 글자로 새로운 자연을 상상하던 때를 떠올렸다"며 "나의 어릴 적 부족하지만 글을 보고 키웠던 상상력이 지금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발휘될 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때처럼 눈감고 보는 물속 풍경, 다른 공간일지도 모르는 상상 속의 풍경을 그렸다"며 "전염병으로 공간 이동의 제한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고 내면을 다지고 외부 세계를 동경하던 과거의 생활 방식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채동문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작품 제목을 30

여년 전 졸업 전시부터 쓰고 있다. 채동문은 "생각, 욕심, 포부, 사소한 일상 모두를 들켜지 않고 세련된 모습으로 내놓고 싶은 생각을 담았다"고 말했다. 채동문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나를 절제하며 감히 생각조차 못해보고 가 본 적 없는 높은 가치의 'SOMEWHERE(어디)'를 만들기 위해 남들이 자는 시간에 검검한 뒷산에서 부르는 벌레의 노래에 귀 기울인다"며 "새벽을 깨우는 새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의 예의바른 폭발이 작품을 보는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해 관훈갤러리, 오리갤러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갤러리H, 이안아트스페이스, 한경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은 화면에 넣어 두 공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한 작품들이 있다"며 "한 작품은 안과 밖을 보는 사람이 정해서 보면 되는데, 갖가지 감상평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굴 안에서 밖을 보는 것 같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 같다"며 "미시시피라는 글자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한 것처럼 보고 또 보며 그림 속 내용을 찾아보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Burn Baby Burn 홍승표(작سن홍/90년대)



홍승표 동문의 개인전 'Burn Baby Burn'이 6월9일-7월27일 일우재단에서 열린다. 디자이너이자 미술가로서 홍동문은 사물의 가변성에 흥미를 가지고 사물과 인간 사이에 창출되는 불확정적인 상황을 즐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홍동문의 작업은 크게 네 번의 단계를 밟아왔다. 첫번째 단계는 하이테크 전자제품과 그 사용자에 대한 비평적 디자인이다.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기술만능주의에 잠식된 디자이너의 위상을 반성하고, 시각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번째 단계는 로우테크 도구와 일상의 심리적 드라마에 관한 고찰로, 일상의 미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세번째 단계는 기념비 혹은 조각적인 양식을 전유한 설치작업이다. 이때부터는 전시의 맥락과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다. 마지막 단계는 공간과

작품이 복합적으로 조직된 작업이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홍동문이 다루었던 다양한 작업들의 세계를 두 범주로 분류하여, 전술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종합한 '연소 전(燃燒 前, precombustion)'과 세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재구성한 '연소 후(燃燒 後, postcombustion)'를 각기 다른 공간에 전시한다. '연소 전'은 현실세계의 부조리에 분노하는, 혹은 마지못해 해결



해보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도 비판하는 자괴감이 언제나 발화될 수 있는 우울한 세계를 발랄한 색상과 형태로 드러낸다. 한편 '연소 후'는 '연소 전'의 성마른 기제를 반성적으로 응시하는 거울의 이면과 같은 사후세계로서, 연성을 낮추는 폐허 속 은둔자의 태도를 지닌다. 홍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 및 동 대학원 졸업후 미국 Cranbrook Academy of Art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페리저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Cold on a Warm Day 서상익(97서양)



서상익 동문이 지난 6월10일-7월17일 아틀리에아키에서 개인전 'Cold on a Warm Day'를 열었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전시는 누군가에 대한 '관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지니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리 두기'에 대한 서사를 담아낸 20여점의 페인팅 작업과 드로잉 신작들로 구성됐다. 서동문은 현대판 정통 구상 회화로 거론되며 국내외 미술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왔다. 개인사부터 사회구조에 이르기까지 현실과 상상 속 다양한 장면을 표현하는 서동문의 작업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보편적 풍경에 작가가 지닌 개인적 태도와 감성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서동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은 차가움과 무심함이다. 초기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던 시기에도 그의 입장은 참여가 아닌 관찰이었고, 발언이 아닌 무심코 던지는 농담에 주목했다. "작가와 거리가 너무 가까운 그림은 힘들고 부담스럽다"라는 서동문의 말은 그가 추구하는 위치를 잘 설명해준다. 전시제목인 'Cold on a Warm Day'는 이질적 요소들 사이의 간극에 대한 작가의 관심에서 기인한다. 날카로운 직선과 유동적인 터치, 구성되고 재단된 공간 속 군상의 자연스러움, 평면성을 드러내며 입체감을 띠는 공간과 같은 양극을 적극적으로 공존시키는 작업을 통해 요소 간의 거리감을 복기함과 동시에 그 경계를 흐리며 이미지가 지닌 관념적인 면에 대한 탐구를 가시화하였다. 모교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서동문은 모더니즘적 도시 풍경과 사실적으로 표현된 인물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광주시립미술관, 하나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프롬나드 빈우혁(석15서양)



빈우혁 동문의 개인전 '프롬나드(Promenade)'가 6월16일부터 7월23일까지 용산구 한남동 갤러리바톤에서 열린다.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연못과 그 수면의 변화무쌍함에 관해 오랜 시간 탐구한 끝에 완성한 신작을 선보인다. 프롬나드(Promenade), 산책로라는 제목의 전시회에 소개된 작품들은 작가가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풍경을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자유롭게 조합하고 재해석한 결과물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에,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기억에 담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번 프롬나드에서 특히 총 8점으로 구성된 길이 7.2m 연작은 모네의 '수련'을 떠올리게 하면

서도 즉흥성과 추상성이 두드러진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평면성을 강조하고, 색면으로 연안을 표현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빛과 수면이 만나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포착해냈다. 모네의 '수련'과는 1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2021년 현대적 감성이 추가되어 거대한 숲이라는 공간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빈동문의 주된 주제는 기억력과 경험과 같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자신만의 방법과 시간이다. 숲은 작가가 늘 선택했던 소재이다. 특히 '독일의 숲'들은 빈동문의 불우한 환경과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동요와 복잡한 심정을 비우고 평정과 치유를 경험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과거 인상파 화가들이 동경했던 풍경이 주는 감동을 빈동문 또한 자연스레 추구하게 됐다. 현재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인 빈동문은 201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하고 2018년 서울대 대학원 서양화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2019년 한국예탁결제원 초대작가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서울조각회 40주년 특별전 '404040'



서울조각회(회장 원인종/75조소)가 7월 6~31일 서울조각회 40주년 특별전 '404040'을 김세중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조각회원 40명의 작품으로 구성된 '40대 작가전'과 '40대 이외의 서울조각회 회원 42명의 작품으로 구성된 정기회원전'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40대 작가들을 부각하는 만큼 정기전(42번째)은 40x40x40cm 이내의 규모로 한정해 김세중미술관 1층의 세미나실에서 집약적으로 개최하며 30대 신진작가부터 80대 원로 작가까지 참여한다. 서울조각회는 당시 모교 교수 김세중(46조소) 동문이 1981년에 창립한 단체로써 200여명의 모교 조소과 출신 작가들로 구성되었으며, 30-80대까지의 각 세대가 매년 신작을 통해 정기전에 참여하고 있다.

40대작가전

김경섭 김기대 김명아 김민애 김재형 김정모 김주환 김중용 김혜명 김홍석 노진아 박도윤 박진희 백연수 변경수 서해영 성지훈 신건우 신기운 신종훈 연기백 옥현철 이경재 이상윤 이석준 이성민 이장원 이종건 이진영 이하림 이형욱 임도원 장우진 정상현 정진서 최대울 최종하 한승구 허 산 형다미

정기회원전

최의순 이기주 전 준 심정수 김효숙 최남진 박남연 정현도 오익석 오귀원 유향숙 이경희 전경옥 홍승남 전항섭 원인종 김 준 김항록 조병섭 임명옥 최 일 안병철 전미정 하도홍 도학희 이동용 이수정 최정희 이기칠 송은주 주상민 최호정 노 준 이민수 서길현 김영호 김용경 오창근 김대락 김 봄 강호연 최유진

신간



명작 스마트소설

주수자(72조소) 옮김 / 문학나무

프란츠 카프카, 에드거 앨런 포, 오스카 와일드, 버지니아 울프 등 세계 유명 작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 27편을 짧게는 한 페이지에서 열 페이지가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재구성한 '명작 스마트소설'(문학나무)이 지난 6월21일 출간됐다. 스마트폰으로 읽기 쉽도록 짧은 분량과 간결한 문체가 특징인 단편소설을 칭

하는 스마트소설은 순문학임에도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장르로 평가된다. 이 책에 실린 작가들은 작품세계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짧은 호흡의 작품을 주요하게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품마다 평설을 수록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한편 작품 해석의 힌트를 제공한다. 책을 번역한 주수자 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뒤 세계를 떠돌며 언어의 가치와 문화적 사상에 대한 견문을 넓혀왔다. 그는 '제1회 박인성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스마트소설 장르의 선두주자 격으로 꼽힌다. 주동문은 스마트소설의 특성을 살려 작품을 연극 웹툰 등으로 제작하는 등 원 소스 멀티 유스(OSMU)로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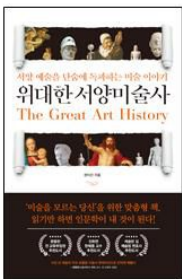
우키요에 이연식(90서양) 옮김 /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반 고흐, 클로드 모네와 같은 대표적 인상주의 화가들이 빠져든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전통 판화, 우키요에.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흘러 들어간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새로운 작품들을 보고 파격적인 구도와 강렬한 색채에 자극받아 '인상파'라는 새로운 사조를 창출해내었다고 알려져 있다. 고흐의 '탕기 영감의 초상' 같은 작품이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은 대표작이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우키요에는 사실 우리나라

라 독자들에게 대표적인 우키요에 몇 점을 빼고는 낯선 미술 분야이다. 하지만, 이 책은 우키요에의 역사, 작가, 기법, 분야별 특색, 주제 및 제작 과정과 판매 방식, 구매층에 이르기까지 우키요에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구체적이고 많은 도판 자료를 통해 우키요에라는 낯선 일본의 전통 판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이연식 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미술사가로 예술에 대한 저술, 번역,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이연식의 서양 미술사 산책', '예술가의 나이듦에 대하여', '불안의 미술관', '뒷모습', '드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컬로 오브 아트', '한국 미술', '그림을 보는 기술', '뮤지엄 오브 로스트 아트' 등이 있다.

위대한 서양미술사 권이선(석02미술이론) 지음 / 생각별



인문학의 꽃이라 불리는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미술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또 미술사에 대한 방대한 정보와 이미지, 그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는 오늘날, 미술사의 흐름을 제대로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미술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방대한 내용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큐레이션일 것이다. 서양 예술을 단순히 독파하는 미술 이야기 '위대한 서

양미술사'는 마치 박물관에서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박물관에서 작품을 보며 설명을 듣는 것처럼 설명과 그림이 가까이 배치되어 있어 읽는 즐거움이 있다. 책의 저자인 큐레이터 권이선 동문은 뉴욕을 기반으로 전시기획과 평론을 해온 베테랑이다. 특히 권동문은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를 설명하는 데 탁월하다. 작품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작품의 양식과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도 미술사적 맥락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미술사적 상황에 치우쳐 살피다 보면 작품이 주는 미적 감흥을 얻지 못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작품이 주는 미적 감각과 미술사적 의미를 조화롭게 설명한다. 저자가 엄선한 작품들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술사의 흐름이 파악됨과 동시에 방구석에서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CiEL DESIGN

인간과 자연, 예술을 사랑하는 (유)시엘 디자인 입니다.

도시민들의 문화향유와 휴식공간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기업 정신입니다.

시엘 디자인은 인간, 자연,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경관디자인 실현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소 : 전북 김제시 두월로 279-12

전 화 : 063-547-3200

1공장 :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37

H . P : 010-4653-6863

2공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119-21

E-Mail: ciel3200@hanmail.net

(유)시엘 대표 김형기 청동, 알루미늄, 스텐 주물, 원형 점토 작업, 석조각, 제작 시공 업체

전시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6.01-)	전시장소
구자영(88서양)	Encounter A	06.11 - 07.11	갤러리노마드
권기동(83회화)	Drawing Nowhere	06.22 - 06.28	갤러리너트
권창남(82조소)	권창남 초대전	06.18 - 07.08	갤러리내일
김남표(91서양)	Castle	06.08 - 06.30	갤러리나우
김민기(69회화)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6.10 - 06.2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김병종(74회화)	생명의 숲과 바다	06.08 - 10.17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전관
김승환(80조소)	유기체&영원성	06.10 - 07.11	밀라노 시립 프란체스코메시나박물관
김창열(48회화)	꿈을 품은 물방울	06.01 - 08.29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김현정(94조소)	HUMAN	06.09 - 06.30	밴 랜딩햄 갤러리
김황록(80조소)	사물의 꿈 - 그의 초상	06.09 - 06.18	갤러리 한옥
박현숙(75회화)	박현숙 Park, Hyunsook	06.02 - 06.08	아리수갤러리
배준성(86서양)	아름다운은 고정적인 대상일 수 있을까?	06.04 - 07.21	윤선갤러리
빈우혁(석15서양)	프롬나드	06.16 - 07.23	갤러리바톤
서동희(66응미)	골짜기의백합화(the Lily of the Valleys)	- 11.27	바이블도자예술관
서상익(97서양)	Cold on a Warm Day	06.10 - 07.17	아뜰리에 아키
안성민(90동양)	둥실, 두둥실	06.02 - 08.29	코유(Coyu)
유현경(05서양)	그림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06.12 - 06.30	잇다스페이
윤소린(석14서양)	세이프 서치	06.09 - 06.13	CICA미술관 3-A전시실
이강소(61회화)	몽유(夢遊, From a Dream)	06.16 - 08.01	갤러리현대
이 다(96서양)	일렁	06.05 - 06.25	갤러리이마주
이순영(84동양)	탈피 molting	06.02 - 06.30	아트린 뮤지움
이혜민(74응미)	그리움	06.04 - 06.25	청화랑
이환범(73회화)	이환범한국화전 그날그림	06.14 - 06.20	원인재 작은갤러리(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재역사)
장 진(92동양)	장진 초대전	06.21 - 06.30	도든아트하우스
전영옥(66회화)	It' me	06.01 - 06.29	갤러리 밀레플러스
정진국(48회화)	故 정진국 화백 추모전 (1928-2018)	06.01 - 06.15	갤러리청주
조은령(87동양)	일상적인 희생물 - 잊혀지는 것들	06.04 - 06.18	서울일삼
천창환(05서양)	A Day Tuner 조여드는 낮	06.23 - 07.18	아트스페이스영
한재석(10조소)	피드백커 : 모호한 경계자	06.17 - 07.10	OCl미술관 2층 전시실
홍승표(작슨홍/90산디)	Burn Baby Burn	06.09 - 07.27	일우스페이스
황규철(89동양)	화전	06.15 - 06.30	못그린 미술관

양생 養生
생명을 복원다

최혜인 개인전
2021. 7. 14 (수) - 2021. 8. 1 (일)
11:00 - 18:00

갤러리 도들 서울시 종로구 삼정로 87 T. 729-1405,6

송지영 | 선을 건너, 색을 지나
2021. 07. 28 - 08. 03

GALLERY DOS
2021년 말러리 도스 일문 후를 기록으로 전달하기

HYUNHO PARK

Creamy Catastrophe Solo Exhibition
2021. 7. 1 to 2021. 7. 30

Color Project 01 BLUE
"What's your color?"
www.hyunho.art @hyunho_art

VUTTONS